

## 13장 문둥병의 경우들

13-14장에 나오는 문둥병은 사람뿐 아니라 옷이나 건물에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센 병이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학자는 피부가 흰 껍질 혹은 비늘로 덮여 있는 증상을 가리킨다고 한다.<sup>1)</sup>

13-14장은 (1) 사람과 의복에 발생한 문둥병(13:1-59), (2) 정결케 되는 규례(14:1-32), (3) 집에 생기는 문둥병(14:33-54)로 구분된다.

### 1.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 (13:1-46)

서론 (13:1)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것이다. 주위 민족에게서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을 지라도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정과 정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각 부분은 (1) 문둥병의 의심이 나면 (2) 제사장이 진찰하고 (3) 환부에 대한 묘사를 한 후에 (4) 제사장이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장은 문둥병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2-44절에서는 문둥병의 증상으로 스물한 가지를 말하는데,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부스럼 (13:2-8)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알렸고, 제사장은 그를 자세히 살펴서 털이 희어졌는지, 환처가 우묵한지에 따라서 문둥병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7일 후에 다시 보아서 병색이 퍼지지 않으면 다시 7일 동안 관찰한다. 그 사이에 환처가 줄어들고 퍼지지 않았으면 단순한 피부병이고 문둥병이 아니라고 판결한다.

#### 2) 난육[생살]이 돋은 경우 (13:9-17)

피부에 흰점이 생기고 털이 희어지고 난육(생살, 바사르 하이)이 생겼으면 오랜 문둥병으로 선언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피부가 흰 것으로 다 덮이면 환자를 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것은 백반병(vitiligo)의 하나이고 문둥병이 아니기 때문이다.<sup>2)</sup>

그렇지만 다시 생살(난육)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고, 그 생살이 변하여 온몸이 희게 되면 다시 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 3) 종기 (13:18-23)

종기가 생겼는데,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다. 종기는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중의 하나였고(출 9:9-11), 히스기야나 욥에게 내린 질환이었다(왕하 20:7; 사 38:21; 욥 2:7). 그런데 이러한 종기가 생긴 곳에 문둥병이 발생할 수 있다. 제사장은 그곳이 피부보다 아고 털이 희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7일 동안 살펴서 그 점이 피부에 퍼지면 부정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 4) 화상 (13:24-28)

화상을 입은 자리에 불그스레하고 흰 점이 생기거나 순전히 하얀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진찰할 것이다. 종기의 경우처럼 피부에 변형이 없고 퍼지는 일이 없으면 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 5) 머리와 수염의 백선 (13:29-37)

머리나 수염이 있는 곳의 피부가 우묵하게 되고 털의 색이 변하면 머리나 수염에 생긴 문둥병이다. 이러한 문둥병은 ‘옴’이라고 부른다.

1) Milgrom, *Leviticus 1-16*, 816-826.

2) R. K. Harrison, *Leviticus*, 142.

몸에 걸렸는지의 여부도 찬찬히 살피도록 하였는데,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격리하여 관찰하고 증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모발을 밀고 다시 7일 후에 관찰하도록 하였다. 머리를 미는 일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정도가 심해질 때에만 하였다.

#### 6) 발진 (13:38-39)

피부에 색점 곧 흰 점이 발생한 경우 제사장이 살핀다. 그 색깔이 흐릿하게 하얀색이면 단순한 어루러기다.

#### 7) 대머리 (13:40-44)

머리가 빠진 자리에 희고 붉은 색점이 발행하면 문둥병이 대머리에 발생한 것이다.

#### 8) 문둥병자의 고백 (13:45-46)

문둥병자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하며,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애곡 의식이었다. 부정하다는 고백한 후에 진 밖에 사는 것은 그가 죽은 것과 같은 형편에 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일이다. 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점에서 부정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에 있다.

### 2. 옷에 나타난 문둥병 (13:47-58)

의복에 발생한 색점도 전염성이 있으므로 심각하게 관찰하였다. 특히 가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는데 그것이 퍼지만 악성 문둥병으로 간주하고서 그 옷을 불사를 것이다(13:47-52).

색점이 퍼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옷을 빨고 7일이 지난 후에 관찰한다.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어도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불사를 것이다(13:53-55).

옷을 빨 후에 색점이 옅어지면 그 부분을 찢을 것이지만 색점이 여전히 있으면 불사를 것이다. 색점이 벗겨지면 그 옷을 다시 빨아야 정하게 된다(13:56-58).

59절에서는 털옷, 베옷, 가죽옷에 문둥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규례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을 요약한다.

#### 묵상과 실천:

##### 문둥병의 실제

문둥병에 대한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문둥병이 ‘죽음’ 혹은 ‘육신’과 연결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변형된 것은 ‘죽음’과 가까운 병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는 이스라엘의 진에 들어올 수 없었다. 또한 난육(바사르 하이, 즉 생살)이 생긴 경우도 즉각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되었다. 여기에서 생살이 돋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육체’(바사르)가 되었다고 하면서 심판하신 것처럼, 육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이다.

그 외에도 종기, 화상, 움, 백반병, 대머리 등에서 심각한 변형이 생기면 부정하다고 하였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쳤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방식이었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진 밖에서 살아야 하였다.

문둥병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육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지를 상기시킨다. 문둥병에 대한 엄격한 교훈은 그 회복에 관한 규정에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

13장 익힘 문제

1.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둥병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진단하여 부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절)
2. 문둥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얼마동안 가두어 놓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까? (4-6절)
3.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쳐야 하였는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했습니까? (45절)
4. 문둥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병 있는 날 동안은 어디에 혼자 거하여야 하였습니까? (46절)
5. 문둥병이 생긴 의복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52절)